

【 해외금융뉴스: 일본 】

미츠이스미토모, 일본 손보사 최초로 미국에 기후보험 판매

- 일본의 대형 손해보험회사인 미츠이스미토모(三井住友)해상화재보험은 일본 손해 보험회사로서는 최초로 기후보험(天候保險)을 미국시장에 시판하기로 했다고 발표 함.
 - 캔사스주(州)를 시작으로 미국 50개주 전역에서 판매망을 확대할 계획이며, 3년 간 약 10억 엔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음.
 - 미국시장에서 반응이 좋으면 유럽과 아시아 전역으로 판매망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힘.
- 이번에 시판되는 기후보험은 실제 피해 손실액이 발생하지 않아도 기온이나 강설 량 등의 보험금 지불 조건에 따라 보상해 주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금융 파생상품과 유사한 형태를 지님.
 - 기후보험은 기상 이변으로 보험계약자의 수익이 감소하거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경우에 강우, 강설량 등 기상 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지불해 주는 상품으로 이미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는 민간 보험회사에 의해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음.
 - 이번 신상품은 폭설로 제설 비용이 증가하거나 기온 급강으로 인해 레저시설의 고객이 감소하는 등 직접적인 피해액을 산정하지 않고 일정 기상 조건만 되면 보 상금을 지불해 주고 있어 기후 관련 금융 파생상품에 가깝다고 평가되고 있음.
 - 그러나 미국 일부 주(州)에서는 파생상품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 험 상품 형태로 시판함으로써 미국 전 지역에서 판매가 가능할 수 있게 됨.
 - 반면에, 일본 내에서는 실제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불할 수 없으며, 관련 상품도 판매할 수 없도록 상법으로 규제하고 있음.

(요미우리 신문 01/07,
FujiSankei Business I 01/08)